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송 미 영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관점에서 한국여성노인의 빈곤을 살펴 보기 위하여 차상위 실태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를 활용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여성노인의 빈곤원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별이었으며, 종속변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결과인 근로로부터의 배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도적 배제, 주거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로부터 여성노인의 빈곤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으로부터 배제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사회적 배제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빈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빈곤, 사회적 배제 관점, 성인지적 관점, 여성노인]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8일 한국노년학연구회와 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370-70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2-1번지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미영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mysong0215@hanmail.net이다.

서 론

최근 신빈곤 양상을 설명할 때 성, 연령 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곤하며,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노년기의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빈곤에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다차원적인 빈곤문제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빈곤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Pearce는 빈민노인의 70%이상이 여성이라는 수치를 통하여 경제적 빈곤계층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밝히고 있다 (Pearce, 1978). 그리고 빈곤이 성중립적인 아니라 성별화된 현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성의 빈곤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뿐만 아니라 성차별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결핍 이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빈곤이 성별화된 현상이라는 점의 분석은 전통적인 빈곤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숨겨진 빈곤”(hidden poverty)으로 파악할 수 있다 (Lister, 2004).

한편, 한국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빈곤율이 10% 더 높고, 소득수준이 더 낮고, 공공부조이전소득이나 사적 소득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더 높다 (석재은·임정기, 2007). 또 배제의 차원인 빈곤, 근로빈곤, 실업, 주거환경미비, 교육기회결여, 의료욕구 미충족, 사회적 고립, 정보·서비스 소외 중 취약계층인 여성, 고령, 저학력을 가진 사람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들이 고루 분포되었다 (김안나,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다양한 배제로 인한 빈곤을 경험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관점에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특성 차이에 따라 배제영역이 다를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노인빈곤이 성 및 연령 차별적인 특성이 있다면 기존연구와는 다른 배제형태와 배제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성노인의 경제적 배제(박명선, 2002; 이미진·이용우, 2008), 제도적 배제(최희경, 2004a), 여성노인의 빈곤(최선화, 1999; 최희경, 2004b)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노인의 한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가지 형태의 배제를 다루거나 전반적인 빈곤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 관점으로 한국빈곤을 살펴본 연구가 있지만 (김안나, 2007), 사회적 배제의 차원에서 경제와 근로의 차원이 매우 중첩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령을 고려하였으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형태는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가 있으나 (정미숙, 2007), 가족 내 권력관계와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생애사를 분석하여 다차원적인 여성노인의 배제영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지적¹⁾ 및 사회적 배제²⁾ 관점에 의거하여 다양한 차원의 여성노인의 빈곤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은 남성노인과 다르며, 사회적 배제 결과인 근로로부터의 배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도적 배제, 주거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로부터 여성노인의 빈곤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여성노인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이론적 검토

빈곤에 관한 기존 논의 및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빈곤의 개념은 크게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된다. 현대 사회에서의 절대적 빈곤은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된다. 최저한의 필요 자원을 화폐로 환산한 것이 빈곤선이며,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때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박능후, 2004).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비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하는 일

1)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과 남성의 삶의 비교하고, 여성특유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각종제도나 정책을 검토하는 관점(www.donga.com).

2) 기존의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빈곤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성격과 역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을 강조함.

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인간은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의 상승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 등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 있다. 경제학적이 아닌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규정되는 빈곤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존재한다 (박능후·송미영, 2006).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빈곤선으로 책정하여 상대적 빈곤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빈곤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주관적 빈곤, 빈곤을 세대 간에 전승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의하는 문화적 빈곤 등이 있다 (허근, 2006). 빈곤에 대한 기존논의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으며, 현재 빈곤개념은 경제, 사회, 정치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소득의 결핍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빈곤은 남성과 달리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빈곤화 과정에 물질적 및 비물질적 요인들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정미숙, 2007). 영국의 제2차 국가행동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social inclusion)은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높은 빈곤율을 의식하고 있으며, 남녀간 임금격차 축소,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보육서비스 등이 강조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층을 들었다. 그리고 특히 빈곤문제에 대하여 성인지적 시각이 정부의 모든 목표설정 에 반영하고, 각종 지표에서도 성별에 따라 결과를 분리 도출하였다 (강신욱 등, 2005). 따라서 여성노인의 다차원적인 빈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의 배제 관점으로 빈곤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배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으로의 진입이나 그 대상과의 교류를 막는 일이다.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소득, 자산, 주거, 교육, 기술, 고용 등일 수 있고, 추상적으로는 시민권, 법이 보호하는 평등, 인간적 대우 등일 수 있으며 (박능후, 1999), 또 특정제도, 사회체계, 국가 그 자체 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복지와 정책 차원에서 소수의 사회적 부적응자, 빈곤계층, 하위계층, 소수민족 사람들로 주류사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회에서 현실적으로 차단되어 자원 확보에 실패한 자들의 상황을 가리킨다 (류지웅, 2006). 사회적 배제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가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영역 구분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을 유럽연합의 사회적 지표인 경제, 실업, 근로, 교육, 건강에 주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영역을 추가하여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강신욱 등, 2005). 사회적 배제의 형태를 다차원적으로 논의한 Kronauer(1998)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labor market exclusion), 경제적 배제(economic exclusion), 문화적 배제(cultural exclusion),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social isolation), 공간적 배제(spatial exclusion), 및 제도적 배제(institutional exclusion)라는 6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될 수 있다 (류지웅, 2006).

한편, 한국 여성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정이나 노동시장은 물론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거나 (허근, 2006), 여성노인은 공적연금에서도 거의 배제되어 있다 (석재은 · 임정기, 2007). 그리고 빈곤 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결과, 생애 전체에 걸친 성차별과 불평등, 사별이나 이혼, 건강악화와 같은 특정한 생애사건에 의해 심화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여성노인의 빈곤의 확산된다 (최희경, 2004b).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 근로빈곤, 주거환경미비, 의료욕구 미충족,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들은 경제적 배제 차원인 빈곤과 교육기회의 결여, 사회적 고립 영역에서 높은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안나, 200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여성노인의 배제 영역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강신욱 등, 2005; Kronauer, 1998). 즉, 근로로부터의 배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도적 배제, 주거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여성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표는 근로로부터의 배제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의 하고 있는지 여부,’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력’이 무학은 배제, 초등학교 이상학력자는 비 배제, 제도적 배제는 ‘공적연금 수급여부,’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는지 여부,’ 문화적 배제는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는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 여부,’ 경제적 배제는 ‘최저생계비이하 여부’이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약 7년 정도 더 길며, 노후에 직면하는 어려움도 더 크다 (최선화, 2006). 특히 빈곤층 여성노인들은 빈곤층, 여성, 노인이라는 삼중으로 배제되어 있다 (안진, 2005). 또한 인간 노년빈곤 차이보다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성별인데, 여성노인들이 빈곤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McLaughlin & Jensen, 2000),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위험도는 여성일수록, 낮은 학력일수록 더 높고,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 지역별 노인빈곤 격차가 분명하여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노인빈곤이 높았다 (최현수·류연규, 2003). 여성노인의 소득이 남성노인과 다를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노인 개인특성인 성, 지역, 연령, 교육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가구특성인 혼인상태, 가구형태, 자녀수, 1인당 가구소득, 가구주여부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공공부조,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노인은 총소득, 노인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공공부조소득은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로부터 취약한 소득실태에 놓인 여성노인은 빈곤층에 대한 사후대책적이며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사전 예방적이고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석재은·임정기, 2007).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에 여성 가구주의 특성 및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규모별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에 기초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자본특성인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특성인 총가구원 수, 가구내 취업자 수, 미성년 유자녀 수, 노인부양 수, 노동시장특성인 근로시간형태, 취업상태, 업종, 직종 그리고 종속변수는 빈곤여부이었는데, 분석 결과 연령, 학력, 혼인상태가 여성가구주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근, 2006). 남성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8년 정도 더 길며,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한 생애주기에 발생된 문제라기보다는 전 생애에 걸친 성차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여성학적 관점이다.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빈곤여성노인 12명에 대한 사례연구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관계의 단절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여성노인의 수입과 직결되지 않았다 (최선화, 1999).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주 건강, 노인단독가구과 소득특성인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소득, 가족이전소득, 기타소득, 빈곤여부이며 종속변수는 공공부조 수급여부이다. 분석결과, 연령, 학력, 건강, 노인단독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소득특성은 근로소득, 가족이전소득, 빈곤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인구학적특성과 소득특성을 모두 투입하면, 연령, 건강, 노인단독가구, 가족이전소득이 공공부조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희경, 2004a).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 및 여성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중심으로 통제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인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노인연령 3구분(65세~74세, 75세~84세, 85세 이상),’ 사회 경제적 특성인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으로 설정하여 성별차이로 다차원적인 빈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분석자료

분석 자료는 차상위계층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자료이며, 이는 1차 판별조사, 2차 심층조사, 행정조사 I 및 II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판별조사는 차상위계층의 범위설정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2차 심층조사 등의 표본추출에 활용되었다. 1차 판별조사의 표본설계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이용하여 확률비례 2단 집락추출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국 30,000가구 대상의 생활실태, 소득, 재산, 지출 등의 조사였다. 2차 심층조사는 1차 조사대상 중 소득 계층에 따라 총 4,400가구를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차상위 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했고, 생활여건, 복지욕구 및 충족여부, 미충족 원인 등을 조사한 것이었다. 행정조사 I은 행정자료와 설문조사의 상이성과 함의규명을 하고 부양의무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조사 II는 행정자료상의 비금융재산을 중심으로 1차 조사대상 중 2,000가구에 대한 조사였다 (이현주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1차 판별조사와 2차 심층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했는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1,209명(여성 515명, 남성 69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이었다.

연구문제 및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배제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노인의 성별에 따라 ① 근로로부터의 배제 정도, ②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정도, ③ 제도적 배제 정도, ④ 주거로부터의 배제 정도, ⑤ 문화적 배제 정도, ⑥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정도, 그리고 ⑦ 경제적 배제 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전술한 7개 사항이 종속변수, 성별은 독립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변수,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통제변수로 이용되었다. 이들에 대한 코딩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로부터의 배제: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의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2차 심층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원 대상으로 한 질문지 중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① 예와 ② 아니오로 구분했는데, 아니오는 배제로 그리고 예는 비 배제로 다시 코딩하였다.

(2)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학력이 무학인 경우이다. 1차 조사 자료 중 ‘교육수준’을 무학이면 배제, 초등학교 이상이면 비 배제로 다시 코딩하였다.

(3) 제도적 배제: 공적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이다. 수급하지 않으면 배제로, 수급하면 비 배제로 다시 코딩하였다.

(4) 주거로부터의 배제: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족 수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면 배제, 사용하면 비 배제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5) 문화적 배제: 원하는데 종종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면 배제, 여가활동을 하면 비 배제로 변수를 변환하였다.

(6)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것이다. 친척이나 친구가 없으면 배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으면 비 배제로 다시 코딩했다.

(7) 경제적 배제: 2003년 기준 최저생계비이하³⁾의 노인이다. 경제적 배제인 빈곤노인가구와 경제적 비 배제인 비빈곤 노인가구로 구분하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인가구이면 배제,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인가구이면 비 배제로 변수를 전환하였다.

(8) 성별: 독립변수로 여성을 기준으로 dummy변수로 변환하였다.

(9) 인구학적 특성: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노인연령 3구분(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모두 통제변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무를 기준, 장애여부는 있음을 기준, 만성질환여부는 있음을

3) 1차 자료와 2차 가구자료를 결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빈곤가구를 가려내어 빈곤과 비빈곤 가구로 구분함.

기준, 노인연령은 85세 이상을 기준으로 dummy coding했다.

(10) 사회경제적 특성: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및 지역으로 이들도 통제변수였다.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은 ‘지금보다 나빠질 것임’을 기준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임’, ‘지금보다 나아질 것임’으로 dummy coding했으며, 지역은 농어촌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로 dummy coding했다.

성별에 따른 상기의 7개 차원의 종속변수(사회적 배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고, 여성노인의 다차원적인 빈곤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해석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사회적 배제

남녀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배우자유무 측면을 비교하면, 유 배우자 비율은 남성노인의 경우 89.6%인 반면, 여성노인은 3.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p<.001$). 장애의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76.8% vs. 23.2%, $p<.001$), 만성질환의 경우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았다 ($p<.001$). 노인가구주의 연령을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남녀 모두 65~7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 범주에서 남녀 노인의 비율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노인가구주의 기대를 보면, 남성노인은 ‘지금보다 나빠질 것임’(50.9%)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여성노인은 ‘지금과 비슷할 것임’(50.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p<.01$). 지역도 세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49.1%)과 여성노인(47.6%)은 농어촌에 가장 높은 비율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세 지역에 따른 남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남녀차이 [단위: 명 (%/%)]

변수	구분	남성노인	여성노인	χ^2
배우자	유	622 (89.6/97.3)	17 (3.3/2.7)	884.06***
	무	72 (10.4/12.6)	498 (96.7/87.4)	
장애	유	96 (13.9/76.8)	29 (5.6/23.2)	21.52***
	무	597 (86.1/55.1)	486 (94.4/44.9)	
만성질환	유	440 (63.4/52.2)	403 (78.3/47.8)	30.89***
	무	254 (36.6/69.4)	112 (21.7/30.6)	
연령	65-74세	462 (66.6/59.3)	317 (61.6/40.7)	3.24
	75-84세	217 (31.3/54.0)	185 (35.9/46.0)	
	85세 이상	15 (2.2/53.6)	13 (2.5/46.4)	
미 래 의 주 관 적 생활수준	지금과 비슷함	283 (40.9/52.3)	258 (50.2/47.7)	10.65**
	지금보다 나아짐	57 (8.2/58.8)	40 (7.8/41.2)	
	지금보다 나빠짐	352 (50.9/62.0)	216 (42.0/38.0)	
지역	대도시	188 (27.1/56.5)	145 (28.2/43.5)	0.30
	중소도시	165 (23.8/56.9)	125 (24.3/43.1)	
	농어촌	341 (49.1/58.2)	245 (47.6/41.8)	

** $p < .01$ *** $p < .001$

남녀 노인의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근로로부터의 배제를 비교하면, 남성노인의 62.3%와 여성노인의 80.4%가 근로로부터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노인의 22.2%와 전체 여성노인의 62.3%가 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관한 제도적 배제의 분석결과, 남성노인의 78.4%와 여성노인의 88.9%가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노인의 주거로부터의 배제를 비교하면, 남성노인의 4.0%와 전체 여성노인의 4.7%만이 주거로부터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적 배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86.0%와 여성노인의 93.0%가 문화로부터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사회

<표 2>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에서의 남녀차이 [단위: 명 (%/%)]

변수	구분	남성노인	여성노인	χ^2
근로	배제	431 (62.3/51.0)	414 (80.4/49.0)	46.09***
	비 배제	261 (37.7/72.1)	101 (19.6/27.9)	
교육	배제	154 (22.2/32.4)	321 (62.3/67.4)	199.69***
	비 배제	540 (77.8/73.6)	194 (37.7/26.4)	
제도	배제	544 (78.4/54.3)	458 (88.9/45.7)	23.17***
	비 배제	150 (21.6/72.5)	57 (11.1/27.5)	
주거	배제	28 (4.0/53.8)	24 (4.7/46.2)	0.28
	비 배제	665 (96.0/57.6)	490 (95.3/42.4)	
문화	배제	595 (86.0/55.5)	478 (93.0/44.5)	14.78***
	비 배제	97 (14.0/72.9)	36 (7.0/27.1)	
사회적 관계망	배제	386 (55.7/58.8)	271 (52.7/41.2)	1.05
	비 배제	307 (44.3/55.8)	243 (47.3/44.2)	
경제	배제	326 (47.0/48.8)	342 (66.4/51.2)	45.15***
	비 배제	368 (53.0/68.0)	173 (33.6/32.0)	

*** $p < .001$

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를 비교하면, 남성노인의 55.7%와 여성노인의 52.7%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배제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47.0%와 여성노인의 66.4%가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의 여성노인 빈곤

(1) 근로로부터의 배제: 여성노인의 빈곤을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연령(3범주),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및 지역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는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근로로부터의 배제여부이었다. 분석결과표는 1단계는 성별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로부터의 배제결과를 제시하였고, 2단계는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요약했고 또 2단계를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표 3> 참조). 통제변수 중 근로로부터의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연령(65-74세), 지역(대도시), 지역(중소도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지적 근로로부터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유의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chi^2=250.238$, $p<.001$), 설명력은 27%이었다 (Nagelkerke $R^2=.26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 exp(b)]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유무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있는 노인이 '근로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2.02배, 장애여부에서 장애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근로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2.32배, 만성질환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근로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79배 증가한다. 장애가 없는 노인 및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이 노인의 근로로부터의 비 배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 건강이 근로여부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85세 이상의 노인보다 65-74세 사이의 노인이 근로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6.3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4.74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2.44배)이 '근로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의 빈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투입된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연령(3범주),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는 교육으로부터의 배제여부였다. 분석결과 (<표 4 참조>), 통제변수 중 교육으로부터의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65-74세), 미래의 경제생활

<표 3> 성인지적 근로로부터의 배제 요인 분석 (N=1,203)

근로로부터의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326	1.386
· 배우자유무(d)	.974***	2.649	.703*	2.019
· 장애여부(d)	.835**	2.305	.841**	2.319
· 만성질환유무(d)	.589***	1.801	.582***	1.789
· 노인연령: 65세-74세(d)	1.833**	6.253	1.855**	6.389
· 노인연령: 75세-84세(d)	.546	1.726	.564	1.757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131	.877	-.122	.885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270	1.310	.267	1.307
· 지역: 대도시(d)	-1.552***	.212	-1.554***	.211
· 지역: 중소도시(d)	-1.233***	.291	-1.229***	.293
상 수	-3.117***	.044	-3.190***	.041
모형 유의확률	$X^2 = 250.238^{***}$			
전체 분류 정확 %	75.1%			
모형요약 (Nagelkerke R^2)	.266			

주: 분석 자료는 차상위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차 판별조사와 2차 심층조사.

d: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의미하며, 성별(기준=여성), 배우자유무(기준=배우자무), 장애여부(기준=장애), 만성질환유무(기준=있음), 노인연령(기준=85세 이상),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기준=지금보다 나빠짐), 지역(기준=농어촌)임. * $p<.05$ ** $p<.01$ *** $p<.001$

(지금과 비슷함), 지역(대도시), 지역(중소도시)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X^2=324.274$, $p<.001$), 설명력은 32%이었다 (Nagelkerke $R^2=.32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85세 이상의 노인보다 65-74세의 노인이 교육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6.15배,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이 교육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4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농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표 4> 성인지적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요인 분석 (N=1,205)

교육으로부터의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1.738***	5.686
· 배우자유무(d)	1.703***	5.491	.277	1.320
· 장애여부(d)	.086	1.090	.160	1.174
· 만성질환유무(d)	.093	1.098	.015	1.015
· 노인연령: 65세-74세(d)	1.545**	4.689	1.817***	6.153
· 노인연령: 75세-84세(d)	.515	1.674	.726	2.066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293*	1.340	.368*	1.445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498	1.645	.531	1.701
· 지역: 대도시(d)	.908***	2.479	.935***	2.547
· 지역: 중소도시(d)	.631***	1.880	.710***	2.034
상 수	-2.201***	.111	-2.783***	.062
모형 유의확률	$\chi^2 = 324.274^{***}$			
전체 분류 정확 %	71.9%			
모형요약 (Nagelkerke R^2)	.320			

주: 분석 자료 및 d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함.

* $p < .05$ ** $p < .01$ *** $p < .001$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2.55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2.03배)이 교육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노인에 비하여 남성노인은 교육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5.69배 높았다.

(3) 제도적 배제: 투입된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연령(3범주),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이며,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는 제도적 배제여부이다. 분석결과 (<표 5> 참조), 통제변수 중 제도적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래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 ‘미래의 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 ‘지역: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제도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모형 유의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chi^2=51.778$, $p<.001$), 설명력은 7%이었다 (Nagelkerke $R^2=.070$).

송 미 영

<표 5> 성인지적 제도적 배제 요인 분석 (N=1,205)

제도적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457	1.579
· 배우자유무(d)	.809***	2.246	.430	1.537
· 장애여부(d)	-.012	.988	-.002	.998
· 만성질환유무(d)	.010	1.010	-.004	.996
· 노인연령: 65세-74세(d)	.974	2.650	1.007	2.738
· 노인연령: 75세-84세(d)	.597	1.816	.624	1.865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533**	1.704	.546**	1.727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580*	1.786	.582*	1.790
· 지역: 대도시(d)	-.434*	.648	-.435*	.647
· 지역: 중소도시(d)	-.455*	.635	-.448*	.639
상 수	-2.979***	.051	-3.087***	.046
모형 유의확률	$X^2 = 51.778^{***}$			
전체 분류 정확 %	82.8%			
모형요약 (Nagelkerke R^2)	.070			

주: 분석 자료 및 d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함.

* $p<.05$ ** $p<.01$ ***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을 생각하는 노인이 ‘제도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73배, ‘지금보다 향상할 것’을 생각하는 노인이 ‘제도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7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1.55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1.56배)이 제도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주거로부터의 배제*: 투입된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노인연령 3구분,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이며,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는 주거로부터 배제여부이다. 분석결과(<표 6> 참조), 통제변수 중 주거로부터의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표 6> 성인지적 주거로부터의 배제 요인 분석 (N=1,203)

주거로부터의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229	1.257
· 배우자유무(d)	.211	1.235	.018	1.018
· 장애여부(d)	-.249	.780	-.241	.786
· 만성질환유무(d)	-.649*	.523	-.658*	.518
· 노인연령: 65세-74세(d)	.699	2.012	.725	2.064
· 노인연령: 75세-84세(d)	.302	1.352	.326	1.386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182	1.200	.186	1.204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213	.808	-.218	.804
· 지역: 대도시(d)	.368	1.446	.366	1.441
· 지역: 중소도시(d)	-.607	.545	-.603	.547
상 수	2.963**	19.358	2.905**	18.266
모형 유의확률	$\chi^2 = 14.654$			
전체 분류 정확 %	95.7%			
모형요약 (Nagelkerke R^2)	.040			

주: 분석 자료 및 d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함.

* $p < .05$ ** $p < .01$ *** $p < .001$

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만성질환유무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유의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chi^2=14.65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주거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93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문화적 배제*: 투입된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노인연령 3구분,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이며,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는 문화적 배제여부이다. 분석결과 (<표 7> 참조), 통제변수 중 문화적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장애여부,’ ‘미래의 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 ‘지역: 대도시’로

송 미 영

<표 7> 성인지적 문화적 배제 요인 분석 (N=1,204)

문화적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393	1.482
· 배우자유무(d)	.876***	2.407	.551	1.735
· 장애여부(d)	2.847**	17.238	2.857**	17.405
· 만성질환유무(d)	.385	1.470	.373	1.452
· 노인연령: 65세-74세(d)	.748	2.112	.797	2.219
· 노인연령: 75세-84세(d)	1.124	3.077	1.168	3.216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261	1.298	.269	1.308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1.137***	3.117	1.132***	3.101
· 지역: 대도시(d)	.862***	2.369	.863***	2.370
· 지역: 중소도시(d)	.369	1.446	.377	1.457
상 수	-6.976***	.001	-7.088***	.001
모형 유의확률	$\chi^2 = 82.039^{***}$			
전체 분류 정확 %	89.0%			
모형요약 (Nagelkerke R^2)	.131			

주: 분석 자료 및 d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함.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 성인지적 문화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유의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chi^2=82.039$, $p < .001$), 설명력은 13%이었다 (Nagelkerke $R^2=.13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여부는 장애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문화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7.41배 증가하며,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보다 지금보다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이 문화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3.10배 증가한다. 지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문화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2.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투입된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노인연령 3구분,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준, 지역이며,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여부이다. 분석결과 (<표 8> 참조), 통제변수 중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유무’, ‘만성질환유무’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5$), 모형의 유의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chi^2=24.869$, $p<.01$), 설명력은 3%이었다 (Nagelkerke $R^2=.02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있는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66배 증가하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남성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81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인지적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요인 분석 ($N=1,205$)

사회적 관계망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593*	.553
· 배우자유무(d)	.004	1.004	.506*	1.658
· 장애여부(d)	-.082	.921	-.102	.903
· 만성질환유무(d)	.295*	1.343	.318*	1.374
· 노인연령: 65세-74세(d)	-.272	.762	-.336	.715
· 노인연령: 75세-84세(d)	.050	1.051	-.008	.992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149	1.161	.132	1.142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201	1.223	.200	1.221
· 지역: 대도시(d)	-.262	.769	-.259	.772
· 지역: 중소도시(d)	-.239	.787	-.252	.777
상 수	.008	1.008	.162	1.176
모형 유의확률	$\chi^2 = 24.869^{**}$			
전체 분류 정확 %	57.0%			
모형요약 (Nagelkerake R^2)	.027			

주: 분석 자료 및 d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함.

* $p<.05$ ** $p<.01$ *** $p<.001$

(7) *경제적 배제*: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노인연령 3구분,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을 통제하여, 성별을 투입하여,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9> 참조), 통제변수 중 경제적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유무,’ ‘미래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 ‘미래의 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 ‘지역: 대도시’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경제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유의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chi^2=107.224$, $p<.001$), 설명력은 11%이었다 (Nagelkerke $R^2=.11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odds ratio)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있는 노인이 경제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70배 증가하며,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지금보다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노인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인(1.51배), 지금보다 향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인(2.22배)이 경제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적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에서 노인빈곤이 성차별적이고 연령차별적인 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특성 차이에 따라 배제영역이 다를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노인과 관련 있는 배제형태와 배제지표를 적용하여 2차 자료인 차상위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자료로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여성노인의 빈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성별에 따른 일곱 가지 배제 형태인 근로로부터의 배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도적 배제, 주거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표 9> 성인지적 경제적 배제 요인 분석 (N=1,205)

경제적 배제(0) · 비배제(1)	b	Exp(b)	b	Exp(b)
· 성별(d)			.379	1.461
· 배우자유무(d)	.844***	2.325	.528*	1.695
· 장애여부(d)	-.097	.908	-.084	.919
· 만성질환유무(d)	.109	1.115	.096	1.100
· 노인연령: 65세-74세(d)	.723	2.060	.760	2.139
· 노인연령: 75세-84세(d)	.070	1.073	.103	1.109
· 미래 경제생활: 지금과 비슷(d)	.396**	1.485	.409**	1.506
· 미래경제생활: 지금보다 향상(d)	.793**	2.210	.797**	2.219
· 지역: 대도시(d)	.377**	1.458	.375*	1.455
· 지역: 중소도시(d)	.031	1.031	.039	1.040
상 수	-1.459**	.233	-1.561**	.210
모형 유의확률	$\chi^2 = 107.224^{***}$			
전체 분류 정확 %	64.1%			
모형요약 (Nagelkerake R ²)	.114			

주: 분석 자료 및 d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함.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과 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은 집단 간 근로로부터의 배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제도적 배제, 문화적 배제, 경제적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이므로 성별 사회적 배제가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1단계로 통제 변수인 배우자유무, 장애여부, 만성질환유무, 연령(3범주), 미래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지역을 투입하고, 2단계로 성별을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일곱 영역별로 배제여부를 분석하였다.

한국여성노인의 빈곤을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으로부터 배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사회적 배제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교육으로부터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5.69배 증가한다. 즉, 여성노인이 교육적으로부터의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남성노인

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비 배제에 속할 확률이 -1.81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성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여성노인들의 다차원적인 빈곤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인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모든 면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빈곤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여성노인들은 교육적으로 배제되어 빈곤하였지만,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비 배제되어 빈곤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남성노인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생교육개념으로 여성노인들의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천의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욱 · 김안나 · 박능후 · 김은희 · 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 (2007). 한국적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 류지웅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능후 (1999).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성*.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능후 (2004). *빈곤을 추정의 쟁점과 대안*. 비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55-266.
- 박능후 · 송미영 (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7-26.
- 박명선 (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 (2), 175-204.
- 석재은 · 임정기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 1-22.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 안 진 (2005). *빈곤여성의 생애사를 통한 삶의 이해: 목포 상동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여성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하게 학술대회 자료집. pp. 381-415.
- 이미진 · 이용우 (2008). 사별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중단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4 (3), 117-143.
- 이현주 · 백화중 (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45.
- 정미숙 (2006).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87-211.
- 최선화 (2006). *여성복지론*. 경기 파주: 학현사.
- 최현수 ·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 (3), 143-160.
- 최희경. (2004a).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 237-259.
- 최희경 (2004b). *부산지역 빈곤여성노인의 현황 및 생애사 분석과 정책제안*. 부산여성정책연구 제2호.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허 근 (2006).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ronauer, M. (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New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poverty. In H. J. Andress (Ed.),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Comparative Perspective*. Brookfield, Vermont: Ashgate.
- Lister R. (2004). *Poverty*. Cambridge: Polity Press.
- McLaughlin, D. K., & Jensen, L. (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 469-470.
-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

**Poverty of the Elderly Women in Korea:
Focusing on
Gender Sensitive and Social Exclusion Perspectives**

Mi Young S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ungdong University
Youngdong, Korea 370-701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poverty of the elderly women in Korea from the gender sensitive and social exclusion perspectives. A set of survey data, using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nalyzed for this purpose. Independent variable was gender, while dependent variable was the binominal condition of exclusion or inclusion (non-exclusion). Control variables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e., age, marital status, disabled status, chronic disease), social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economic level in the future, and their residential area. Seven types of exclusion (labor market exclusion, exclusion from education, institutional exclusion, exclusion from housing, cultural exclusion, exclusion from social network, economic exclusion) were fixed in the analyses. The concise findings of the analyses were that exclusion from education as well as exclusion from social network were mainly influenced by gender. However, the other social exclusion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it.

(논문접수일: 2008년 10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8년 11월 21일)

(논문게재승인일: 2008년 11월 28일)